

# 진흥회 활동

## 전자산업 기술개발 인력 확보대책 건의

본회가 조사한 「기술인력 확보실태」자료에 따르면 연구직의 경우 작년말 현재 부족인원은 총 소요인원 2만 6,700명중 800명, 기술직은 총 소요인원 8만 6,200명중 90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화사회 확산과 정보통신서비스산업의 활성화로 국내 전자산업계의 고급기술인력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작년말 현재 석사급이상의 고급기술인력은 수요에 비해 1,700여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기술계 대학의 산업현장 실습제 도입 등 다각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회는 올해 당장 기술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대학의 입학정원을 증원해 그 영향이 대학수학 및 병역의무기간을 포함, 7년후인 2003년이나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기술인력난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전자산업계의 종업원중 연구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4.6%로 지난 90년 대비 1.5% 포인트 높아졌고 기술직은 15.0%로 6.9%포인트 상승했다.

이같은 추세 속에 석사급 이상의 기술직·연구직 인력은 오는 2000년까지 매년 13.2%씩 증가하고 2005년까지는 11.7%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전자산업계의 기술인력은 지난해말 11만2,900에서 2000년에는 21만 5,000명, 2005년에는 37만 4,1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진흥회는 이에 따라 전자관련 공학계열 중심으로 대학입학정원을 늘리고 산업계 부설대학 설립을 활성화하는 한편 기술인력의 병역면제를 확대하고 기술계대학의 산업계 현장실습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 95년 전자수출 435억 9,400만 달러로 최종 집계

본회(회장 구자학)가 최종 집계한 지난해 전자수출은 부품 280억 6,400만 달러, 가정용 78억 6,100만 달러, 산업용 76억 6,800만 달러 등 총 435억 9,4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목표치인 438억3,000만 달러에 비해 2억4,000달러 정도 미달한 것이지만 사상 처음 400억 달러선을 돌파하고 전체 수출 비중의 34.9%를 차지하는 등 명실공히 전자수출국의 초석을 다졌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주요 품목별 수출실적은 반도체가 전년대비 70.3% 증가한 221억 1,500만 달러, 컴퓨터가 44억3,200만 달러, 음향기기가 19억 8,100만 달러, 컬러TV가 18억 1,800만 달러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미주의 경우 산업용 29억3,600만 달러, 부품 89억 8,700만 달러, 가정용 15억 8,800만 달러 등 총 135억 1,100만 달러로 전년대비 37.3%의 증가율을 기록했고, 일본은 산업용

---

3억 8,100만 달러, 부품 37억6,300만 달러, 가  
정용 9억 100만 달러 등 총50억 4,500만 달러  
로 57.6%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

### 전자부품 종합정보 DB구축 추진

---

본회는 정보사회의 고도화, 정보화에 따른 수  
요자의 욕구가 확산됨에 따라 정보의 제공도 점  
차 신속성과 정밀성이 요구되고 있다고 판단.

수요업체의 설계 및 구매부서와 부품업체에 필  
요한 국산화된 전자부품, 소재를 신속히 제공함  
으로써 제조업체에 대한 판매확보를 원활히 하기  
위해 산업정보망 구축, 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따라서 전자부품 종합 정보 DB구축을 적극적  
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차년도인 97년까지 2년  
간은 국내에서 개발, 생산되는 모든 전자부품,  
소재의 제품규격, 재질, 업체현황 등을 DB화 할  
것이며, 2차년도인 98~2000년까지는 제품의  
그림, 도면 등의 검색이가능한 정지화상 시스템  
도 구축할 계획이다.

---

### 전자부품 산업협의회 간담회 개최

---

동협의회는 지난 3월 18일 무역센터에서 오리  
온 전기 엄길용사장 등 17명이 참석,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자부품산업의 발전방향, 협의회 운영  
현황, 부품업체 연구개발 인력난 전자부품·종합  
정보망 구축에 따른 업계 홍보방안 등을 논의했  
다.

---

### 가전산업협의회 간담회

---

동협의회는 지난 3월 20일 팔레스호텔에서 가  
전산업협의회 회원사 LG전자 박찬용이사 등 10  
명이 참석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찬회에서는 업무실적 및 수치결산, 가  
전제품 특소세 인하추진, 폐가전 처리시설 구축,  
오디오업계 활성화를 위한 임원간담회 추진 등을  
협의했다.

---

### 컴퓨터산업 협의회 대표자 회의

---

동협의회는 지난 4월 2일 서울 팔레스호텔에  
서 컴퓨터산업협의회 회원사 15명이 참석, 대표  
자 회의를 개최하고 국내의 컴퓨터산업 동향, 컴  
퓨터 보급확대 등 사업방향을 협의했다.

---

### 가전제품 부품표준화 협의회 간담회 개최

---

본회는 지난 3월 26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동간담회를 개최했다.

동간담회에는 통상산업부 서사현 생활공업국,  
가전3사 부사장 등 10명이 참석했으며 95년도  
표준화 대상품목의 추진상황 점검, 가전업계 현  
안문제 등을 논의했다.

---

### 간이무선국 기술기준확인증명 제도개신 건의

---

---

본회는 지난 3월 8일 정보통신부가 간이무선국(일명 위키토키)에 대하여 '96년 1월 30일부터 기술기준확인증명 제도를 실시하여 판매업체 및 소비자가 전수검사와 함께 대당 31,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게 함으로서 업계 및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며, 또한 구입비용 부담가중으로 인한 판매 감소에 따라 우리나라 통신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판단 통상산업부, 정보통신부, 행정쇄신위원회 등에 우리나라 통신산업의 발전과 국민들에 대한 통신서비스의 확대,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휴대용 간이무선국에 대한 기술기준확인증명 제도의 폐지를 건의했다.

---

### 가전제품 재활용 사전평가 결과 심의회 개최

본회는 지난 96년 3월 14일 본회 회의실에서 가전제품재활용 사전평가 심의기관으로서 신개발 제품의 감량화, 재자원화 등 15개 항목의 이행여부를 심의했다.

이날 심의회는 송실대 도갑수 교수 등 35명이 참석했는데 포장재의 획기적 감량, 부품수 대폭 감소 등 전반적으로 업계의 자구노력이 부각되었으나 대형화, 대용량화 추세에 따른 감량화 부분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

### 소프트웨어 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개선 건의

본회는 지난 3월 18일 동시행령이 정부 및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사업 소요기기의 공급계약 가격을 신고된 사업자로 제한함으로써 자율경쟁을 저해한다고 판단, 통상산업부에 이의 시정을 건의했다.

이날 건의 내용은 정부 및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사업 소요기기 공급계약 자격을 모든 소프트웨어 사업자에 개방토록 했다.

---

### 전자의료기기 해외규격 인증 워크숍 개최

전자의료기기 산업협회의는 지난 3월 22일부터 23일까지 양평 플라자에서 동워크숍을 개최했다.

동워크숍은 선진국이 국제규격을 무역장벽으로 이용하고 있어 우리나라 전자의료기기 업계의 유럽시장 개척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함에 따라 국산전자의료기기의 국제규격 인증 워크숍을 통해 품질향상과 유럽시장 개척을 지원코자 열리게 됐다.